

규범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풋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규범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앞의 다섯 권이 "국어が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뤘다면, 이 책은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앞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만의 성격 — 당장 오늘 쓰는 것들입니다

앞 권들은 시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릅니다**.

되와 돼를 헛갈려서 검색해본 적 있으시죠.

카톡 쓰다가 안과 앎을 고민한 적도요.

"금액이 십만원이십니다"가 왜 이상한지 설명 못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건 시험이 끝나도 평생 쓰는 것들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메일을 보낼 때에도.

들어가기 전에 **아나운서** 이야기를 했죠. **announce**와 **pronounce**가 어원이 형제라고요. 이 책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요.

이 책만의 성격 — 규정은 '약속'입니다

문법과 규범은 다릅니다.

문법 — 우리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규범 — 어떻게 쓸지 **정해놓은 약속** (그렇게 하기로 함)

문법은 발견하는 것이고 **규범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에는 "왜 하필 그렇게?"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다만 대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과 그냥 외울 것을 가르치는 일**이 남습니다.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별점
0 ~ 0.4	한글 맞춤법	★★★★★
0.5 ~ 0.6	표준어와 표준 발음	★★★★★
0.7 ~ 0.8	표준 발음법 심화	★★★★★
0.9	정확한 문장 표현	★★★★★
1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	★★

고비는 어디일까요

0.4 띄어쓰기입니다. 규정이 많고 예외도 많아요.

그런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단어는 띄어 쓴다. 다만 조사는 붙여 쓴다.

나머지는 전부 이 원칙의 응용이거나 예외입니다. **원칙을 먼저 세우고 예외를 붙이세요.** 반대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앞 권과의 관계

이 책은 **1권 음운론과 가장 많이 겹칩니다.** 표준 발음법이 음운 변동 규칙 그 자체거든요.

다만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1권 — 왜 그렇게 되는가 (원리)
이 책 — 무엇이 표준인가 (규정)

1권을 보셨다면 이 책의 발음 부분은 복습이 됩니다. 안 보셨어도 여기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5권 중세국어**가 이 책의 '왜'를 대줍니다.

규범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500년 동안 밀려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 5권이 나옵니다.

맞춤법 총칙의 두 원리 ←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0.1)

사이시옷 ← **중세의 관형격 조사 'ㅅ'** (0.3)

받침이 일곱 개인 것 ← **8중성에서 하나 줄어든 것** (0.2 · 0.7)

두음법칙 · 구개음화 ← **중세에는 없던 규칙** (0.2)

5권을 안 보셨어도 읽을 수 있게 그때그때 설명을 붙여줬습니다. 다만 이 대목들이 이 책에서 "그냥 외우세요"가 가장 적은 자리예요.

0 규범은 왜 있을까요

START

땅 파기

설계도가 아니라 시공 규칙집을 펼칩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의 약속입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1분 자가진단

아래 열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답은 바로 다음 쪽에 있습니다.

- ① 그렇게 하면 안 (되 / 돼)
- ② 밥을 먹지 (안 / 않)았다
- ③ 학생 (으로서 / 으로써) 할 일
- ④ 가(든지 / 던지) 말(든지 / 던지)
- ⑤ (왜 / 웬) 떡이야
- ⑥ (몇일 / 며칠) 만이야
- ⑦ 아는것이 힘이다 — 띄어쓰기를 고치면?
- ⑧ '인기'의 표준 발음은?
- ⑨ '무늬'의 표준 발음은?
- ⑩ "내 꿈은 의사가 되고 싶다" — 무엇이 잘못됐나요?

답을 맞춰보세요.

	답	어디서 다루나
①	돼 ('되어'의 준말)	0.5
②	않 ('아니하'의 준말)	0.5
③	으로서 (자격)	0.5
④	든지 (선택)	0.5
⑤	웬 ('웬'은 '웬지'뿐)	0.5
⑥	머칠	0.5
⑦	아는 것이 (의존명사는 띄어 씀)	0.4
⑧	[인끼] ([인기] ×)	0.8
⑨	[무니] ([무늬] ×)	0.7
⑩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음 → "되는 것이다"	0.9

몇 개 맞히셨나요

점수	
8개 이상	이미 잘 아십니다. 이 책은 정리와 확인용 으로 쓰세요.
5 ~ 7개	딱 맞는 수준입니다. 원리만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4개 이하	잘 오셨습니다. 이 책 하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틀린 문제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이 책은 답이 아니라 판별법을 드립니다.

약속이 없으면 생기는 일

한 사람은 '되'라 쓰고, 한 사람은 '돼'라 쓴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무늬]라 읽고, 한 사람은 [무니]라 읽고요.

말은 통합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서를 만들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사전을 만들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규범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

방언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쓸 기준**이 필요한 거죠.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정해둔 것과 같습니다.

왼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통일해야 안 부딪히니까요.**

규범 넷

규범	무엇을 정하나
한글 맞춤법	어떻게 적을지
표준어 규정	어떤 말을 표준으로 삼을지 · 어떻게 발음할지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를 한글로 어떻게 적을지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지

표준어 규정 안에 표준 발음법이 들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이 책이 하는 일

규정을 통째로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글 맞춤법만 57개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랐습니다.

- ① 원리로 이해할 것 — 이유가 있는 것들
- ② 그냥 외울 것 — 이유가 없거나 예외인 것들
- ③ 자주 틀리는 것 — 시험에도 나오고 일상에서도 쓰는 것들

②는 적을수록 좋은 책입니다. 최대한 ①로 밀어 넣었어요.

★ 그럼 누가 정할까요 — 국어심의회 ★★★

규범을 배우다 보면 반드시 이 질문이 옵니다.

"이건 대체 누가 정한 거예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답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심의하나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국어 발전 기본 계획
국어의 국외 보급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학자·교육자·언론인 등이 참여합니다.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 그래서 규범은 바뀝니다

심의를 거쳐 바뀐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짜장면' — 오래도록 '자장면'만 표준이었는데 **2011년에 복수 표준어**가 됐습니다.

'이쁘다' — '예쁘다'만 표준이었는데 **2015년에 인정**됐습니다.

'주책이다' — '주책없다'만 맞다고 했는데 **2016년에 둘 다 인정**됐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규범은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어 규정 제1항을 다시 보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 '두루 쓰는'이 핵심입니다. 쓰이는 것을 확인해서 정하는 구조예요.

💡 지금도 심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ㄱ과 ㄴ의 구별이 그렇습니다. 규범은 아직 둘을 다른 소리로 보는데, **실제로 구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온라인'의 발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래어는 적는 법만 정했고 읽는 법은 안 정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말이 훗날의 규범을 만듭니다.

⚠️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범이 규범입니다. 시험도 문서도 그것을 따라요.

다만 규범을 절대적인 법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합의로 정한 것이고, 합의는 바뀝니다.

규범을 알되 규범에 놀리지 않는 것 — 이 책이 바라는 태도입니다.

확인문제 0

1. 문법과 규범의 차이를 한 줄로 쓰세요.
2.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3. 규범 네 가지를 쓰세요.
4. 표준 발음법은 어느 규정에 속하나요?
5.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쓰세요.
6.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과정이 표준어 규정 제1항의 어느 대목과 이어지는지 쓰세요.

START CLEAR

규범은 왜 있을까요

다음 01 · 한글 맞춤법 총칙 — 두 원리의 줄다리기

남은 것 10 / 10

0.1 한글 맞춤법 총칙 — 두 원리의 줄다리기

규칙집 첫 장. 모든 조항이 이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 전체가 첫 문장 하나에서 나와요.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당깁니다.

① 소리대로 적기 — 표음주의

들리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표음주의**(表音主義), 소리를 적는다는 뜻이에요.

구름 · 나무 · 하늘 · 놀다

대부분의 말이 여기 해당합니다. 소리와 표기가 같아요.

② 어법에 맞도록 적기 — 표의주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입니다. **표의주의**(表意主義), 뜻을 적는다는 뜻이고요. 소리가 달라져도 원래 모양을 지켜요.

꽃 · 꽃이 · 꽃을 · 꽃도

소리는 [꼰] · [꼬치] · [꼬출] · [꼰또]로 제각각이죠.

그래도 '꽃'으로 통일해서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뜻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꽃', '꼬치', '꼬출'로 적으면 → 매번 다른 말처럼 보임
'꽃', '꽃이', '꽃을'로 적으면 → 한눈에 '꽃'이 보임

읽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두 원리에는 정식 이름이 있습니다

원리	이름	장점	단점
소리대로 적기	표음주의(表音主義)	쓰기 편함	뜻을 파악하기 어려움
어법에 맞도록 적기	표의주의(表意主義)	뜻을 파악하기 쉬움	표기가 발음과 동떨어짐

表音은 소리를 적는다, 表意는 뜻을 적는다는 말입니다. 한자만 알면 헛갈릴 일이 없어요.

💡 어느 쪽이 편한지는 누가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쓰는 사람에게는 표음주의가 편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표의주의가 편합니다.

맞춤법이 표의주의 쪽으로 기운 것은 **글은 쓰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총칙은 두 항입니다

제1항만 총칙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가 총칙에 들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가지가 아니라 맞춤법의 두 기둥 중 하나예요. 이 책이 0.4를 통째로 띄어쓰기에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총칙이 세 항인 셈입니다. 다만 제3항은 "자세한 건 다른 규정을 보라"는 안내라 실질적인 원리는 제1항과 제2항 둘이에요. 외래어 표기법은 1단계에서 봅니다.

★ 안 띄면 이렇게 됩니다

"흰색연필도사다줘"

흰 색연필도 사다 줘 ✓

흰색 연필도 사다 줘 ✓

둘 다 됩니다. 띄어쓰기를 안 하면 뜻이 정해지지 않아요.

다만 조사는 예외입니다. '도'는 단어인데도 앞말에 붙여 씁니다. 혼자 못 쓰이기 때문이에요.

★ 두 원리가 부딪히면

이 둘은 자주 충돌합니다.

그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맞춤법의 거의 전부고요.

소리대로면	어법대로면	실제 표기
사라미	사람이	사람이 (어법)
조타	종다	종다 (어법)
마지	맞이	맞이 (어법)
어름	얼음	얼음 (어법)
무덤	문엄	무덤 (소리)
노름	놀음	노름 (소리, 도박의 뜻)

대체로 어법이 이깁니다. 다만 원래 뜻에서 멀어진 말은 소리대로 적어요.

얼음 — 여전히 '얼다'와 관련 있음 → 형태를 밝힘

무덤 — '묻다'와 관련은 있지만 이미 다른 말이 됨 → 소리대로

노름 — '놀다'와 뜻이 완전히 갈라짐 → 소리대로

💡 이게 5권에서 배운 그 이야기입니다.

중세는 소리 쪽이었고 지금은 어법 쪽이에요. 500년 동안 무게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 언제 어법 쪽으로 넘어갔을까요 — 5권 0.4의 세 가지 적기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라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단계	적는 법	예
15세기	이어적기(연철) — 소리 나는 대로 넘겨 적음	사름미 · 기픈
16~18세기	거듭적기(훈철) — 양쪽에 다 적음	사름미 · 깃픈
지금	끊어적기(분철) — 형태를 밝혀 적음	사람이 · 깊은

💡 시험은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를 주로 씁니다.

'연철 표기(이어 적기)'처럼 한자 용어를 나란히 적어주기도 해요. 연철 = 이어적기, 분철 = 끊어적기입니다.

거듭적기(중철)는 기출에는 잘 안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근대국어 시기에 주로 나타난 표기 방식"으로요.

님금 + 이 → 님금미 · 먹 + 을 → 먹글 — 앞 형태소의 **중성 자리에도**, 뒤 형태소의 **초성에도** 적습니다.

가운데 거듭적기가 열쇠거든요. 소리도 버리지 못하고 형태도 놓지 못해 **둘 다 적어버린** 시기예요.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중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알면 나머지 둘이 외울 것이 아니게 됩니다.

💡 총칙의 두 원리는 이 500년을 한 문장에 넣은 것입니다.

"소리대로 적되"는 15세기가, "어법에 맞도록"은 지금이 남긴 몫이에요.

★ 지금 쓰는 맞춤법은 1988년 것입니다

네 날짜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언제	무슨 일이
1443 / 1446	훈민정음 창제 / 반포
1933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 최초의 표기법
1948	정부 수립과 함께 공식 채택. 한국어 정서법의 법전이 됨
1988 → 1989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한글 맞춤법」 발표 (1988. 1. 14) → 1989년 3월 1일 시행

⚠️ 책마다 1988년이라고도 하고 1989년이라고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고시는 1988년, 시행은 1989년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 500년 동안 표기법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됐는데 최초의 표기법은 1933년입니다. 그 사이 490년이 비어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제각각 적었습니다.

며느리 · 메누리 · 며늘이 —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한글이 오랫동안 공식 문자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문서는 한문으로 썼으니 한글 표기를 정할 이유가 없었죠.

💡 그래서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불평은 사실과 다릅니다.

90년 동안 딱 한 번 개정됐습니다. 1933년에 만들어져 1989년에 한 번 고쳐진 게 전부예요.

다만 제정 이후 50여 년 사이에 사회가 급격히 변했고, 그 변화를 담으려고 한 번 손본 겁니다.

⚠ '통일안'의 '마춤법'은 오타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적었고, 지금은 '맞춤법'입니다.

규범을 정한 문서의 제목조차 규범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었다 — 이 책의 한 문장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예가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여섯 장입니다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장	무엇	이 책에서는
제1장	총칙	0.1 (지금 여기)
제2장	자모	(자모 이름과 순서 — 1권)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0.2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0.3
제5장	띄어쓰기	0.4
제6장	그 밖의 것	0.5
부록	문장 부호	(미수록)

💡 이 책의 0.1~0.5는 한글 맞춤법의 장 순서 그대로입니다.

제가 임의로 짠 순서가 아니라 **규정 자체의 순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조항을 찾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찾게 됩니다.

확인문제 0.1

1. 한글 맞춤법 총칙의 첫 문장을 쓰세요.
2. 두 원리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3. '꽃'을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로 쓰고, 왜 형태를 밝혀 적는지 설명하세요.
4. '얼음'과 '무덤'이 다르게 적히는 이유는?
5. '노름'과 '놀음'의 차이를 쓰세요.
6. 이어적기 · 거듭적기 · 끊어적기를 예와 함께 쓰세요.
7. 거듭적기가 왜 중요한 단계인지 설명하세요.
8. 두 원리의 정식 이름을 쓰고, 각각의 장단점을 쓰세요.
9.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을 쓰고, 조사가 예외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 "흰색연필도사다쥐"가 두 가지로 읽히는 이유를 쓰세요.
11. 한글 맞춤법의 네 낱자(창제·통일안·공식 채택·현행 고시)를 쓰세요.
 - 11-1. **책마다 1988년이라고도 하고 1989년이라고도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11-2.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말이 왜 사실과 다른지 쓰세요.**
12. 한글 맞춤법의 여섯 장을 순서대로 쓰세요.
13. 총칙 제3항의 내용을 쓰세요.

STAGE 01 CLEAR

한글 맞춤법 총칙 — 두 원리의 줄다리기

다음 02 · 소리에 관한 것

남은 것 9 / 10

0.2 소리에 관한 것

CHAPTER 02 / 10

땅 파기

소리 때문에 헛갈리는 자재들을 정리합니다.



①

강의 0.2

① 두음법칙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소리 때문에 헛갈리는 표기들을 모았습니다.

된소리 표기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소쩍새 · 어깨 · 오빠 · 아끼다 · 기쁘다 · 깨끗하다 · 가끔

'왜 된소리인지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 다만 이럴 때는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ㄱ ·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국수 [국쑤] — 국쑤 ×

깍두기 [깍뚜기] — 깍뚜기 ×

딱지 [딱찌] · 색시 [색씨] · 갑자기 [갑짜기] · 몹시 [몹씨]

왜일까요? 1권에서 배운 된소리되기 1번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울림소리 뒤에서는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되니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되는 된소리는 안 적고, 설명 안 되는 된소리만 적습니다.

💡 '설명된다'의 기준이 바로 1권 0.8의 된소리되기 다섯 조항입니다.

- ① 안울림 + 안울림 · ② 어간 받침 ㄴ·ㄹ 뒤 · ③ 어간 받침 ㄹ·ㄹ 뒤 ·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 ⑤ 한자어 ㄹ 받침 + ㄷ·ㅅ·ㅈ.

이 다섯 중 어느 하나로도 설명이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된소리로 적습니다.

소쩍새·어깨는 다섯 어디에도 안 걸려서 적는 거고, 국수·깍두기는 ①에 걸려서 안 적는 거예요.

★ 반대로 ㄱ·ㄴ 받침 뒤는 안 적습니다

제5항에는 '다만'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ㄱ·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표기 ○	발음	잘못 적기 ×
국수	[국쑤]	국쑤
깍두기	[깍뚜기]	깍뚜기
쌉둑	[쌉둑]	쌉둑
법석	[법씩]	법씩
딱지	[딱찌]	딱찌
접시	[접씨]	접씨

전부 소리는 된소리인데 표기는 예사소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ㄱ·ㄴ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1권에서 배운 된소리되기 1번(안울림 + 안울림)이라 굳이 적지 않아도 그렇게 발음됩니다.

💡 '뚜렷한 까닭 없이'가 열쇠입니다.

소쩍새·어깨는 **까닭이 없어서** 적고, 국수·깍두기는 **까닭이 있어서**(앞 받침 때문에) 안 적습니다.

🔪 간판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오류입니다.

'쌉둑 미용실' · '깍뚜기' — 둘 다 틀린 표기예요.

구개음화 표기

소리는 바뀌어도 표기는 원래대로 씁니다.

표기	발음
만이	[마지]
해돋이	[해도지]
굳이	[구지]
같이	[가치]
활이다	[할치다]

어법에 맞도록 적기의 대표 사례입니다. '마지'라고 적으면 '만'이 안 보이니까요.

💡 5권에서 배웠듯 구개음화도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중세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없었어요. 턴디가 **천지**로, 디혜가 **지혜**로 바뀐 것이 그 흔적입니다.

그때는 이미 단어 자체가 바뀌어 표기까지 따라갔고, 지금의 '굳이[구지]'는 표기가 형태를 붙잡고 버티는 쪽입니다. 같은 소리 변화인데 규범이 반대로 처리한 셈이에요.

★ 두음법칙·구개음화가 함께 걸리는 말

녀자 → 여자(두음법칙) · 덜 → 절(구개음화)

'질그릇'의 '덜-'처럼 단어 안에서 굳어버린 것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ㄷ' 소리 받침

끝소리가 [ㄷ]으로 나는데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면 ㅅ으로 적습니다.

덧저고리 · 돛자리 · 웃어른 · 무릇 · 사뭇 · 첫 · 헛

'근거가 없으면'이 열쇠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ㄷ으로 적어요.

ㄷ으로 적음	근거	ㅅ으로 적음
돋보기	돋다 (해가 돋다)	돋자리 — 근거 없음
곧장	곧다	웃어른 — 근거 없음

나란히 놓으면 규정이 한 줄로 읽힙니다. 소리는 둘 다 [ㄷ]인데, 뿌리를 댈 수 있으면 ㄷ이고 못 대면 ㅅ이에요.

★ ㄹ이 ㄷ으로 변한 것은 ㄷ으로 적습니다

이건 다른 조항입니다. 원래 ㄹ이던 끝소리가 탄말과 어울리면서 [ㄷ]으로 나면, 소리 그대로 ㄷ으로 적어요.

술가락 → 술가락 · 사흘날 → 사흘날 · 이틀날 → 이틀날
 설달 → 설달 · 바느질고리 → 반질고리

여기서 이 책이 가장 아끼는 짝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나	왜 그렇게 적나
술가락	술(밥 한 술) + 가락	ㄹ이 ㄷ으로 변함 → ㄷ
젓가락	저(箸) + 가락	사이시옷이 들어감 → ㅅ

뒤의 '가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말의 내력이 달라서 표기가 갈려요. 밥 한 술 뜨는 그 '술'이 술가락이고, 젓가락의 '저'는 한자 箸입니다.

💡 이 짝을 외우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왜 하나는 ㄷ이고 하나는 ㅅ이지?"를 한 번 물어본 사람은 다시 틀리지 않아요.

💡 왜 하필 ㅅ일까요. 5권의 8종성이 답입니다.

중세에는 받침에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 여덟 개를 썼고, 그때 ㅅ과 ㄷ은 받침에서도 서로 다른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ㅅ이 ㄷ으로 합류해 지금의 일곱 개(0.7)가 됐어요. 소리는 하나로 합쳐졌지만 표기에는 ㅅ이 남은 것입니다.

🔪 시험은 '8종성'이라는 말 대신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라고 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두 말이 어울릴 때 없던 ㅎ이 튀어나오면 소리대로 적습니다.

수캐(○) / 수개(×)
 살코기(○) / 살고기(×)
 암탉 · 암평아리 · 안팎 · 머리카락

'수 + 개'인데 왜 '수캐'일까요. ㅋ이 어디서 왔는지가 안 보입니다.

★ 이것도 5권이 답을 줍니다 — ㅎ 종성 체언

중세국어에는 받침에 ㅎ을 달고 있던 체언들이 있었습니다.

수 ㅎ (雄) · 암 ㅎ (雌) · 안 ㅎ (內) · 나라 ㅎ · 하늘 ㅎ

혼자 쓰일 때는 ㅎ이 안 보이다가, 뒷말이 붙으면 나타납니다.

붙는 말	어떻게 되나	예
모음으로 시작	ㅎ을 이어 적음	하늘 ㅎ + 이 → 하늘 ㄴ히
ㄱ · ㄷ · ㅂ으로 시작	ㅋ · ㅌ · ㅍ이 됨	고 ㅎ + 기리 → 고키리(코끼리)

둘째 줄이 지금의 '수캐'입니다. 수 ㅎ + 개 → 수캐. 1권의 거센소리되기 그대로예요.

💡 지금은 몇 개의 복합어에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수캐 · 살코기 · 암평아리 · 안팎 · 머리카락 — 이 단어들만 500년 전 받침을 아직 달고 있는 셈입니다.

🔪 기출이 이 규정과 5권의 ㅎ 종성 체언을 묶어서 냅니다.

맞춤법 조항 하나와 중세국어 자료를 나란히 주고 "흔적이 남은 경우"를 고르게 해요. 두 권을 같이 봐야 풀립니다.

두음 법칙

한자어 첫머리에 오는 ㄹ·ㄴ을 피하는 규칙입니다.

원래	첫머리에서	예
라·래·로·뢰·루·르	나·내·노·뇌·누·느	락원 → 낙원
랴·려·례·료·류·리	야·여·예·요·유·이	량심 → 양심
냐·녀·뇨·뉴·니	야·여·요·유·이	녀자 → 여자

★ 두 줄은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표만 보면 그냥 외울 것 같지만, 1권에서 배운 말로 딱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예
라 래 로 뢰 루 르 ㄹ이 ㄴ으로 바뀜 → 교체	락원→낙원 · 래일→내일 · 로인→노인 · 뢰성→뇌성 · 루각→누각 · 룡묘→능묘
랴 러 례 료 류 리 ㄹ이 아예 사라짐 → 탈락	량심→양심 · 력사→역사 · 례의→예의 · 룡궁→용궁 · 류행→유행 · 리발→이발

무엇이 같았을까요. 뒤에 오는 모음입니다.

ㅣ 계열(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앞에서는 탈락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교체

ㄹ은 ㅣ 소리와 유난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ㄴ으로 바뀌었자 또 걸리니까 — '녀자'가 '여자'가 되듯 — 아예 떨어져 나가요.

💡 1권 음운 변동의 '교체'와 '탈락'이 여기서 그대로 쓰입니다. 두음 법칙은 규범이지만 그 속은 음운 변동이에요.

★ 첫머리가 아니면 그대로입니다

낙원(樂園) — 극락(極樂)
양심(良心) — 개량(改良)
여자(女子) — 소녀(少女)
이발(理髮) — 관리(管理)

같은 한자인데 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 오면 바뀌고 뒤에 오면 그대로예요.

💡 5권에서 배웠듯 이걸 나중에 생긴 규칙입니다.
중세국어에는 두음법칙이 없었어요. 북한말에 '로동신문', '리발관'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한 음절로 된 이름씨나 굳어진 말은 그대로 씁니다.

몇 리(里) · 그 양(量) · 신라 · 실낙원 → 낙원이지만 실락원? (→ 실낙원이 맞습니다)

확인문제 0.2

1.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나요?
2. '국수'를 '국쑈'로 적지 않는 이유를 1권 내용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3. '해돋이'를 '해도지'로 적지 않는 이유는?
4. 두음법칙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5. '낙원'과 '극락'이 다른 이유를 쓰세요.
6. 두음법칙이 나중에 생긴 규칙이라는 증거를 하나 쓰세요.
7. 중세국어에 구개음화가 없었다는 증거를 하나 쓰세요.
8. 'ㄷ' 소리 받침을 ㅌ으로 적는 것이 5권의 무엇과 이어지나요?
9. '수 + 개'가 왜 '수캐'가 되는지 5권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10.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를 세 개 이상 쓰세요.
11. '국수·깍두기·쌈'을 된소리로 적지 않는 이유를 제5항의 '다만'으로 설명하세요.
12. 간판에서 자주 보이는 '쌈'과 '깍두기'를 바르게 고치세요.

STAGE 02 CLEAR

소리에 관한 것

다음 03 · 형태에 관한 것

남은 것 8 / 10

0.3 형태에 관한 것

형태를 밝힐지 말지 — 같은 자재를 어떻게 표시할지 정합니다.



①

강의 0.3

① 자음첨가 심화 — 사이시옷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형태를 밝혀 적을지 말지를 정하는 규정들입니다. 0.1에서 말한 두 원리의 줄다리기가 여기서 실제로 벌어져요.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 적습니다

먹다 · 먹고 · 먹어 · 먹으니

좋다 · 좋고 · 좋아 · 좋으니

소리가 [머거], [조아]로 나도 '먹어', '좋아'로 적습니다. 어간을 밝혀야 뜻이 빨리 보이니까요.

★ 다만 원형을 밝힐 수 없으면 소리대로

어간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게 변한 것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드러나다 (들 + 어 + 나다 ×)

사라지다 · 쓰러지다

접미사가 붙은 말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조건	예
-이 · -음이 붙어 명사가 될 때	같이 · 깊이 · 먹이 · 얼음 · 웃음
-이 · -히가 붙어 부사가 될 때	같이 · 굳이 · 밝히

밝히지 않는 경우

조건	예
그 밖의 접미사가 붙어 뜻이 떨어진 것	무덤 · 주검 · 마감 · 무너리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	목거리(병) · 노름(도박)

★ 어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앞의 것은 어간('길다'의 '길-')에 붙는 경우였죠.

어근에 붙을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원래 말이 살아 있으면 밝혀 적고, 없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이'가 붙어 명사가 될 때 — 앞말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지 봅니다.

밝혀 적음	근거	소리대로 적음
갈죽이	갈죽거리다 ✓	개구리
홀죽이	홀죽하다 ✓	귀뚜라미
삐죽이	삐죽거리다 ✓	딱따구리
꿀꿀이	꿀꿀거리다 ✓	부스러기

'개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개구하다'도 '개구거리다'도 안 되죠. 그래서 밝힐 원형이 없어요.

'-히--이'가 붙어 부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 + -히/-이 → 급히 · 꾸준히 · 도저히 · 깨끗이
부사 + -이 → 곰곰이 · 더욱이 · 일찍이 · 히죽이

'일찌기'가 아니라 '일찍이'인 이유가 이겁니다. '일찍'이라는 부사가 이미 있으니 그 모양을 살려 적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 "앞말이 혼자 쓰이는 말인가?"
그렇다 → 밝혀 적기 / 아니다 → 소리대로.
0.1의 두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 뜻이 살아 있으면 밝히고, 멀어지면 안 밝힙니다

밝힘 (뜻 살아 있음)	안 밝힘 (뜻 멀어짐)
목걸이 (목에 거는 것)	목거리 (목이 아픈 병)
놀음 (노는 것)	노름 (도박)
거름?	거름 (비료) — 걸다와 멀어짐
걸음 (걷는 것)	

'목걸이'와 '목거리'가 짝입니다. 목에 거는 장신구는 '걸다'가 살아 있으니 밝히고, 목이 붓는 병은 '걸다'와 상관없으니 소리대로 적어요.

★ '귀걸이'일까 '귀거리'일까

인터넷 쇼핑물에 둘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귀걸이 ○ — '걸다'의 어간을 밝혀 적음
귀거리 ×

제19항 그대로입니다. '걸다'라는 뜻이 살아 있으니 원형을 밝혀요. 목걸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 다만 어간의 뜻에서 멀어지면 밝히지 않습니다.

너머('넘다'에서 왔지만 이미 다른 말) · 너무 · 나마 — 소리대로 적습니다.

'-이'와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 품사가 바뀐 것들이에요.

사이시옷

두 말이 합쳐질 때 소리가 덧나면 ㅅ을 적습니다. 1권 1단계에서 배운 그것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 ① 합성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③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있을 것

조건	예
순우리말 + 순우리말	바닷가 · 나뭇가지 · 냇가 · 아랫니
순우리말 + 한자어	귓병 · 콧병 · 아랫방 · 자릿세
한자어 + 한자어	대체로 안 씀

★ 한자어끼리는 여섯 개만 예외입니다

곳간(庫間) · 셋방(貰房) · 숫자(數字) · 차간(車間) · 퇴간(退間) · 횡수(回數)

이 여섯만 사이시옷을 씁니다. 나머지 한자어 합성어는 안 써요.

초점(焦點) — 초점으로 발음돼도 **촛점** ×
대가(代價) · 개수(個數) · 시가(市價)

★ 이 ㅅ은 원래 조사였습니다 — 5권과 이어집니다

사이시옷의 정체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입니다.

나라 말ㅅ미 — 나라의 말이
부텃 아들 — 부처의 아들

5권 0.6에서 관형격 조사가 **유정**이나 **무정**이냐로 갈렸던 것을 떠올려보세요.

사람·동물에는 이/의가, **무정물과 높임 대상에는 ㅅ**이 붙었습니다.

그 ㅅ이 두 말 사이에 갇힌 채 굳어 지금의 사이시옷이 됐습니다.

중세	지금
바닷 ㅅ ㅅ (바다의 가)	바닷가
나뭇 가지 (나무의 가지)	나뭇가지

💡 조건 ㉠이 왜 '합성어'인지가 여기서 풀립니다.

원래 앞말이 뒷말을 꾸미는 관계일 때 붙던 조사라서, 그 관계가 아니면 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5권에서 ㅎ 종성 체언이 관형격 ㅅ 앞에서는 ㅎ을 안 드러냈던 것도 같은 ㅅ 이야기예요.

확인문제 0.3

1. '먹어'를 '머거'로 적지 않는 이유는?
2. '목걸이'와 '목거리'가 다르게 적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3. '놀음'과 '노름'의 차이를 쓰세요.
4. 사이시옷을 쓰는 세 가지 조건을 쓰세요.
5. 한자어끼리 사이시옷을 쓰는 여섯 단어를 쓰세요.
6. '초점'을 '춧점'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7. '깎죽이'는 밝혀 적고 '개구리'는 소리대로 적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8. '일찌기'가 아니라 '일찍이'인 이유를 쓰세요.
9. 사이시옷은 원래 무엇이었나요? 5권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STAGE 03 CLEAR

형태에 관한 것

다음 04 · 띄어쓰기

남은 것 7 / 10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맞춤법 총칙의 **두 원리**를 세우고, 그 아래 어느 쪽을 택한 예를 각각 달아보세요.

힌트 — 두 원리는 **서로 당깁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맞춤법의 거의 전부예요.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다 그랬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문법과 규범의 차이 0

☐ 규범 네 가지 0

☐ 맞춤법 총칙의 첫 문장 0.1

☐ 이어적기 · 거듭적기 · 끊어적기 0.1

☐ '얼음'과 '무덤'이 갈리는 이유 0.1

☐ 된소리를 적는 경우와 안 적는 경우 0.2

☐ '국수'를 '국쑈'로 안 적는 이유 0.2
- ☐ 두음법칙 · 첫머리가 아닐 때 0.2

☐ 'ㄷ 소리 받침'을 ㅅ으로 적는 이유 0.2

☐ '목걸이'와 '목거리' 0.3

☐ 사이시옷 세 조건 0.3

☐ 사이시옷은 원래 무엇이었나 0.3

☐ 한자어 사이시옷 여섯 0.3

맞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리를 세웠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CHAPTER 04	띄어쓰기
CHAPTER 05	자주 틀리는 맞춤법
CHAPTER 06	표준어 규정
CHAPTER 07~08	표준 발음법
CHAPTER 09	정확한 문장 표현
CHAPTER 10	외래어 · 로마자 표기법

여기까지가 **총칙과 원리**입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 이 한 문장이 두 방향으로 당기는 이야기.

뒤부터가 **매일 쓰는 것들**입니다.

되/돼, 안/않, -데/-대, 로서/로써, 바치다·받치다·받치다,
맞히다·맞추다, 띄어쓰기, 사이시옷.

CHAPTER 05가 통째로 그 이야기이고, 전부 **판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HAPTER 09의 정확한 문장 표현은 수능과 내신이 함께 묻는 자리입니다.

전체 114쪽 · 정답과 해설 · 강의 영상 QR 10개

